

GM 농산물 재배면적 12% 증가

ISAAA, 2007년 1억1430만ha에서 재배 ... 미국이 50% 이상

2007년 유전자변형(GM) 농산물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12%나 늘어났다고 국제 농업-바이오기술 응용보급서비스(ISAAA)가 2월13일 발표했다.

ISAAA에 따르면, 2007년 콩과 옥수수 및 기타 GM 작물 재배면적은 총 2억8240만에이커(1억1430만ha)로 전년대비 12% 늘어나 5년 사이에 2번째로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또 GM 작물을 재배하는 국가는 총 23개국으로 유럽연합(EU)에서는 전년대비 2개국 많은 8개국인 것으로 조사됐다.

GM 작물의 재배면적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5770만ha로 세계 전체 면적의 절반이 넘었으며 다음은 아르헨티나(1910만ha), 브라질(1500만ha) 순으로 3개국 재배면적이 사실상 세계 전체 재배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생명공학기술로 재배된 작물을 음식 또는 사료용으로 수입하는 나라는 29개국으로 나타났다.

또 ISAAA는 중국과 인디아도 GM 농산물 재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GM 작물 재배면적이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소농과 부농을 막론하고 높은 수확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과 함께 환경·건강 및 사회적 관점에서도 많은 혜택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지구의 친구들(FOE)이나 Center for Food Safety 등 GM 농업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빌 프리스 FOE 대변인은 “터무니없는 주장을 늘어놓고 있는 웃기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FOE 등은 별도의 보고서에서 “GM 작물을 재배하면 살충제 사용량이 늘어나고 제초제에 내성을 지닌 잡초가 많이 자라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과 인디아에서 GM 목화 수확량이 매우 좋았다는 ISAAA 주장에 대해 FOE 등은 GM 종자 때문이라기 보다는 “미국과 인디아의 좋은 기후 조건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의 관개개선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FOE 등 환경단체들은 미국 정부 통계상으로도 1994년부터 2005년까지 콩과 옥수수 및 목화 재배에 사용되는 글리포세이트 성분의 제초제 생산량이 15배나 늘었다면서 Monsanto의 생명공학 작물인 <라운드업 레디>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들의 지적에 대해 ISAAA의 클리브 제임스 회장은 부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몇 년 사이에 특히 아시아에서 GM 농산물 재배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ISAAA는 생명공학기업인 Monsanto, DuPont의 파이어니어 하이브리드 인터내셔널 및 Syngenta 등의 후원을 받아 GM 작물 확산을 위해 일하는 단체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2/14>